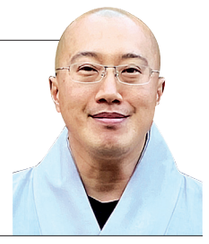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인터넷 카르마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세상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지속돼
시대적 변화 따라 가상현실 확대도
실제 · 가상 현실 공존하는 상황 속
모호한 경계로 새로운 문제도 발생

인터넷서 무한편의 · 가능성 열렸지만
거침 없는 분노 표출 등 인격 왜곡도
악플로 인한 자살로 사회문제로 확대

가상현실에서도 인과응보는 존재해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 인식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인연의 어울림 속에서 이어져 간다. 특히 지금은 과거의 가족, 지역을 중심으로 하던 사회조직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4차산업혁명, 메타버스 등이 그러한 세상의 변화를 대표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확장시켜주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과 풍요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며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만족만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의 현실과 가상의 현실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금 속에서 우리는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초월된 새로운 문제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있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잘못한 원인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때때로 잘못에 상응하지 않은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이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양심, 도덕이라는 사회 속에서의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생각도 점차 변화되어 왜곡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다른 차원 즉 가상의 현실인 인터넷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실제 현실 속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 등을 의식하여 조심스러운 일상을 보내지만, 인터넷 속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말을 극에 치달은 상태로 표현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은 현대의 우리들에게 무한한 편의와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나 그와 동시에 무한한 혼돈의 상자도 함께 열어준 것이다.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말과 글을 하던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얼굴과 말과 생각을 자신이 아닌 것으로 덮은 채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출퇴근길이나 한가로운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 검색 등을 하다가 자신과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른 글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을 보는 자신이 아닌 검은 화면 속의 다른 존재가 되어 악플이나 거침없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적는다. 그리고 정치인과 유명인들의 사생활이나 자신과 비교되는 모습이 있으면 만나본 적도 없는 그들을 향해 비난과 독설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제는 더 이상 현실과 가상이 별개라거나 가상이 현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악플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다가 자살을 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이제 낯선 모습이 아니다.

'인터넷 카르마', 말 그대로 인터넷 세상 속에서의 인과응보를 말하는 표현이다. 우리는 매순간 누군가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인연을 맺고 그 안에서 감정을 나눈다. 그리고 그 인연의 관계가 다시 업이 되어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불변의 관계는 어느 곳이든 우리 자신이 속해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생겨난다. 설령 자신이 얼굴과 이름을 가렸더라도 그 가면 안의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기에 그러한 인과응보는 누군가가 아닌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자신이 나온 쇠 자체를 갉아먹듯이 지은 죄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그 사람 자체를 나쁜 곳으로 끌고 간다."

〈법구경〉의 가르침과 같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허물은 버리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고통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 행동과 말과 생각을 주의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社 說

대선공약, 실질적 변화 이어져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한 정책 공약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2월 중 예고됐던 범불교도대회 봉행이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치권을 향한 불교계 시선에는 '냉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전통문화 관련 정책과 현안문제 해결은 매번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불교계가 이들의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선거를 위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터무니 없는 개선요구가 아니라, 십수년간 논란이 지속됐고 해결이 필요한 현안으로 공감대가 모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사찰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국립공원 제도, 문화재관람료 문제, 전통사찰 보수사업시 과도한 자부담율, 문화재 보유사찰의 전기세 부과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공약에 담긴 정책기조가 큰 틀에서 맥을 함께하고 여야 유력후보들의 입장 또한 상당부분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선출되던지 공약이 지켜진다면 기존 전통문화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불자들의 객관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공적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약의 현실화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공약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지지하고 부족한 점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전통문화는 불교계를 넘어 우리민족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 불자들 뿐 아니라 대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포교 대변화 원년 기대

조계종 제8대 포교원이 '전법ON'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전법 포교 혁신을 선언했다.

순례를 불교 대표 수행으로 확산시키고, 사찰 중심 전법 포교로 현장 반영을 높이며 코로나 엔데믹에 대비하여 불자들의 포교원력을 결집시키는 3대 기조를 발표했다. 이 같은 기조는 크게 소통을 토대로 한 현장 중심 종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포교원은 각종 종책 집행에 있어 포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8대 포교원에서 종책 수립에 앞서 종단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 한 이유기도 하다. 다양한 종책은 결국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전법플랫폼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포교가 기대를 모으는 까닭이다.

3년간 불교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활동이 대부분 차단되는 고통을 겪었다. 신행활동 제한, 대면 전법포교활동 중단 등으로 교세에 영향을 받았고, 수많은 사찰들은 재정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흐름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다시 대면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전법포교의 기치를 새롭게 든 것을 환영할 만하다.

특히 7월 포교신행단체 결집대회에 이어 전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교결집대회는 불교 포교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적재적소에 포교인력을 배치하고, 전문화 역량을 키우고, 불자들의 자부심을 높여 새로운 전법에 나서는 계기가 8대 포교원의 행보로 형성되길 기대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② 지옥

凍土 디스토피아서 발견한 희망불씨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은 연상호 글, 최규식 그림의 웹툰이 원작이다. 〈지옥〉은 원작의 서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웹툰이든 드라마든 한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죽는다는 것을 알리는 고지와 예고된 시간에 지옥의 사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실행한다는 비현실적인 설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원작과 달리 드라마는 고지가 실현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원작에서는 고지를 실현하는 괴물이 명확하지 않게 묘사돼 있어 고지에 대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반면 드라마에서는 괴물의 모습은 물론이고 수취인을 살해하는 장면까지 세밀하게 묘사돼 있어 호러물의 잔인함이 극대화된다.

사견이지만 〈지옥〉은 웹툰 원작을 보기 드물게 잘 영상화한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부산행〉, 〈반도〉 등 연상호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 내러티브상 다양한 인간군상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사건이 전개되고, 테마상 동토(凍土)의 디스토피아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옥〉도 마찬가지이다. 〈지옥〉의 설정이나 플롯은 비상식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에 대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그 재해를 악용하는 무리와 재해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무리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부산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이나 플롯은 원작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인물들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담아낸 점과 후반부의 액션신을 장쾌하게 묘사한 점은 연상호 감독의 돋보이는 역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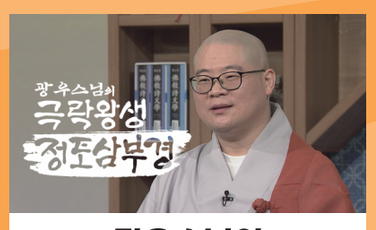
작품 속에서 수취인마다 주어진 삶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인상적이다. 어떤 수취인에게는 20년의 시간이, 어떤 수취인에게는 사흘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이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것이다. 그런가하면 새진리회라는 종교단체가 고지가 전달된 수취인들을 죄악의 근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고지는 종교학적으로는 원죄나 업보, 사회학적으로는 전염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진리회의 열성신도 모임인 화살촉에 의해 수취인은 물론이고 수취인의 가족까지 이중삼중으로 단죄된다는 점에서 고지는 파시즘의 징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갓난애에게 고지가 이뤄지는 대목이다. 수취인의 죄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게 정의라고 보는 새진리회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새진리회가 갓난애에 대한 고지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신의 죄를 지은 자에게만 고지가 실행된다는 새진리회의 교리가 엉터리임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지옥〉은 죄와 벌이라는 전통적인 종교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담의 원죄를 예수가 대속했다는 타력신앙인 기독교와 달리 자력신앙인 불교에서는 업보에 대한 참회도 개인의 몫이다. 원효대사는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해 지성껏 참회하되 이미 지은 죄는 깊이 뉘우치고 아직 짓지 않은 죄는 앞으로도 짓지 않을 것을 맹세해야 한다"고 설했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불기 2566년
개편프로그램안내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광우스님의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매주 (월, 화, 수) 07: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매주 (월) 09:30, 21:30 / (화) 23:2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매주 (월, 화, 수) 19:30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매주 (목, 금, 토) 08:30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매주 (목, 금, 토) 16:00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매주 (목, 금, 토) 19: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